Ⅰ. 서론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 개방에 따라 많은 생보사가 설립되어 보험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1998년 4개의 부실생보사가 퇴출되었고, 2000년 들어서도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1] 이러한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실시로 정부주도의 보험정책이 회사 자율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구조조정의 원인으로는 1997년 금융위기에 따른 회사의 부실 가중도 있지만, 내실 성장보다는 양적성장을 채택한 결과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보험산업은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치우친 경영전략을 채택한 결과, 타 금융권보다 높은 외형성장을 이룩하였으나[2], 급격한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리의 하향기조와 고유업무영역의 잠식 및 재무구조의 불건전성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권간 제휴 및 종합금융화의 확대로 리스크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더불어 보험산업에서도 가격의 완전자유화가 시행 예정으로 있다. 가격자유화 시기에 있어서 생명보험산업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손익을 중시하는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

1) 2000년 2월 현재 금호생명과 동아생명, 한국생명과 조선생명, 영풍생명과 한덕생명, 대한생명과 두원생명, SK생명과 국민생명, 제일생명과 프랑스생명, 동양생명과 태평양생명이 합병과정에 있거나 계약인수중에 있음.

2) 금융기관별 자산의 구성비 추이는 1975년에는 예금은행권 58.0%, 생명보험 1.4%, 기타 40.5% 였으나, 1998년에는 예금은행권 39.2%, 생명보험 7.7%, 기타 53.3%로 생명보험이 동기간중 높은 성장을 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격자유화 시대에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의하여 회사 체질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의 금융지식이 증대함에 따라 효율적인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상품개발시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 등 가격결정의 사전요소와 사후적 가격결정요소인 배당률을 각 회사가 스스로 판단, 결정해야하므로 미래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생존전략 마련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신금리의 최대화, 여신금리의 최소화 등 소비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자산운용의 효율화, 타금융권과의 판매제휴 등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TM, CM등 고효율 저사업비 판매채널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감독측면에서도 회사의 자율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신속한 적응이 필요하다.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감독당국의 지도에만 충실하면 원만한 성장과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나, 자율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2000년 4월부터는 가격에 대한 직접규제는 없고,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1999년 9월부터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급변하는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료 및 손익측면에서 상품유형별 이익 기여도를 분석[3]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동 분석결과가 회사의 신상품 개발시 가격결정 및

기존 판매상품의 활성화 여부 등 상품판매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회사의 손익경영에 참고가 되도록 제2장에서는 손익분석의 의의, 효과 및 손익분석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각 상품유형별로 손익분석 및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손익분석을 기초로 손익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장래의 상품운용방향 및 손익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록에서는 가격자유화 환경에서 손익중심의 가격산출기법인 자산할당방식(asset share method)을 소개하였다.

---

3) 손익분석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단일 상품에 대하여 asset share 방식을 이용한 손익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 종신보험, 암보장보험, 재해보장보험 등 다양한 보험종목을 선택하여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및 손익의 민감도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창수, 「보험상품의 수익성분석」, 『리스크관리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8.12.(제10집) pp. 281 305

-----, 「생명보험상품의 수익성분석」, 『리스크관리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9.12.(제12집) pp. 173 196